

순천 매산등 세계가 주목하는 'K-치유 관광'의 성지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종교를 넘어 '치유'의 가치를 더하다

순천시가 근대기독교 유산의 보고인 매산등(매곡동 일원)을 2030년까지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한국형 성지순례길'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를 통해 매산등을 단순한 종교 유적지를 넘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원도심 치유 관광'의 메카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순천 매곡동 언덕에 위치한 매산등은 20세기 초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터를 잡은 호남 근대화의 심장부였다. 이곳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인 코이트 선교사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순천선교부 어린이학교, 매산중학교 매산관 등 20여 개의 근현대 유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24년, 이러한 유산들을 엮어 각각의 서사를 담은 '매산등 성지순례길'을 구축했다. 조지프와조기범 관 옆에 문을 연 방문자센터는 상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이곳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종교를 넘어 '치유'의 가치를 더하다

10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직접 가꾼 서양식 정원과 건축물들은 당시 불모지였던 이곳에 뿌리내린 교육, 의료, 돌봄의 역사이며,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한국적인 풍경 속에서 이국적인 평온함을 선사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배움과 치료, 돌봄이 이루어졌던 이곳의 역사적 상징성을 현대적인 정서 회복 서비스와 결합해 역사 보존과 공간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2026년,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활력 더해

순천시는 그동안 매산등 선교유적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은 순천 원도심의 대표 축제인 '국가유산 야행'의 개막식과 주요 행사를 매산등 선교유적지에서 개최했고, 2025년에는 선교마을 내 핵심 유산인 '코이트 선교사 가옥'에서 마을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건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산이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문화 공간임을 확인했다.

또한, 2026년에는 그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매산등 일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과거 매산등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매산등 일원이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확장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이 가져올 원도심의 대변신



순천시는 점(點) 단위의 건축물 보존에서 벗어나, 거리 전체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묶는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도전한다. 매산등에서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옛 담장과 골목길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공간의 재탄생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강력한 엔진이다. 역사적 서사를 입힌 콘텐츠는 MZ세대의 '레트로 취향'과 기성세대의 '향수'를 동시에 저격하며,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순천의 새로운 경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 전남 동부권을 잇는 'K-순례길' 완성

순천시의 최종 목표는 매산등을 거점으로 구례(선교사 수양지)와 여수(순양원 목사 유적지)를 잇는 한국형 성지순례길 'K-순례길'을 완성하는 것

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틀을 벗어나, 근대사의 아픔을 치유로 승화시킨 순천만의 독보적인 문화유산 모델이다. 이는 순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넘어 전남 동부권 전체의 관광 지형을 바꿀 것이다.

그 중심에서 순천 매산등은 근대 교육과 의료의 시작된 '희망의 땅'으로서,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과 선교사 가옥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매산등은 순천의 근대 교육과 의료의 시작된 뿌리 깊은 공간"이라며, "이곳을 시민 누구나 머물며 위로받을 수 있는 순천형 치유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강력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장흥 뼈뺨용Zip, '스토리 체험형' 문화공간 변신

화제작 촬영 잇따라... 현실감 넘치는 배경으로 제작진 찬사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뼈뺨용Zip(뼈뺨용집)'이 최근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영화의 핵심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1월 한 달간 총 7개의 촬영팀이 현장 촬영 및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뼈뺨용Zip'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 교도소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자백의 대가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조각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장흥군은 단순히 촬영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 촬영 후에도 관광객들이 극 중 장면과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스토리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하며 더 촬영지와와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마련된 '교정 역사 전시관'은 옛 교도소의 생생한 흔적을 함께 전달하며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촬영 유치 단계를 넘어, 콘텐츠IP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가족센터, 제이미 박 도자기 초대전 '담연' 개최

담양군가족센터(센터장 이예후)는 7일부터 4월 7일까지 59일간 다미담예술구 문화전시관(담양읍 담주4길 24-27)에서 한국 무형문화유산 사기 명장 '제이미 박'의 도자기 초대전 '담연(潭然)'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주제 '담연'은 '담(潭)'이 깊이를 품은 연못을, '연(然)'이 그림듯한 본연의 모습을 뜻해, 고운 결이 머무는 곳, 즉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조화롭게 머무는 공간을 상징한다.

작가는 흙의 온기 속에 담긴 자연의 숨결과 인간의 정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도자예술을 통해 관객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전시회에서는 제주 화산송이 흙으로 제작된 도자기 1,500여 점이 전시된다. 제주 흙으로 빚은 작품들은 담양의 자연과 어우러지며 깊이 있는 색감과 형태미로 예술의 본질과 철학을 표현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로, 개막 행사는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다미담예술구 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다문화가정에 기부해 도자기를 통한 예술적 감동뿐만 아니라 온정을 나누고 상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남 함평군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 온 젊은 작가를 조명하는 기획전 '확장의 순간 : 설박·이성경'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신진 작가 소개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작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작가들의 '현재'에 주목한다. 참여 작가인 설박과 이성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시대의 감각과 문제의식을 작업에 담아내며,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확장해 온 작가들이다.

설박 작가는 한국 전통 수묵산수의 재

함평군립미술관, 기획전 '확장의 순간 : 설박·이성경' 개최

4월 5일까지 운영... "젊은 작가 발굴·지원 박차"

료와 공간 개념을 출발점으로 이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 왔다. 먹의 물성과 우연성을 활용한 수묵산수에서 출발해 설치 및 추상 작업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며 작업의 영역을 넓혀 왔다. 특히 최근 작업에서는 자연을 외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속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성경 작가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제작 과정을 통해 시간과 기억을 화면에 축적

해 온 작가다. 세 겹으로 배접한 장지 위에 묵탄과 물감, 아교 고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그의 작업은 '그림자'와 '경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상태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기획전 「확장의 순간 : 설박·이성경」은 이미 축적된 성과 위에서 새로운 질문과 변화를 모색하는 작가들의 현재를 기록하는 전시다.

함평/전광훈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